

모든 브라민 영혼들에 대한 밥다다의 고귀한 소망

밥다다는 끊임없이 협조적이며 모든 영혼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그와 함께 하고 있고, 고귀하며 행복의 행운을 가진 모든 도구 영혼들을 보며 기쁘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고 아버지를 만나려는 깊은 열망뿐 아니라 열의와 열성도 가진 사랑이 넘치는 영혼들을 보며, 아버지는 자녀들의 사랑과 열의에 보답한다.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이 깊은 사랑과 협조의 느낌을 갖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와 대등해지려는 고귀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밥다다는 그 자신의 왕관보다 더 고귀한 왕관을 가진 고귀한 단계에 있는 자녀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이 옥좌에 앉혀지고, 지고의 거처에서 빛나는 별들이며, 세계의 모든 영혼들의 마음의 의지처이고, 세계 모든 영혼들의 끊임없이 숭배받을 가치 있는 조상들이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것처럼 고귀해지는 것을 보며 대단한 행복을 느낀다. 각 브라민 영혼이 높은 중에 가장 높은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 중 가장 고귀한 단계에 끊임없이 머물러야 한다. 너희의 이름이 것처럼 고귀하니 너희의 과업도 또한 것처럼 고귀해야 한다. 너희가 세계 앞에 그런 고귀한 위신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은 또한 끊임없이 자아존중과 명예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밥다다가 모든 브라민 영혼들에 대해 갖고 있는 고귀한 소망이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너희가 밥다다에게서 받은 지식, 미덕, 그리고 힘의 장식을 걸쳐라. 너희들의 살아 있지 않은 상들이 끊임없이 치장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살아 있는 형태 안에서 언제나 치장되어 있어야 하고, 밥다다의 가슴의 옥좌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초감각적인 기쁨 속에 춤추며 너희의 천사체의 도취감을 유지해라. 이것이 너희가 밥다다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답이다. 너희들은 보답하는 법을 아느냐? 너희의 가슴의 소망과 행위가 일치되게 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는 않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너희의 가장 높은 권위를 택했느냐? 어떤 권위이냐? 너희의 신체기관, 즉 너희의 하인들을 정확하게 통제하는 권위와 더불어 너희의 또 다른 하인들인 마음, 지각, 산스카라의 미묘한 힘들을 통제하는 권위다. 너희들은 그런 권위를 가졌느냐? 너희들은 모든 힘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로서 너희의 신체기관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너희의 권위를 단순히 브라민 가족의 협조적인 멤버들, 도움을 주고 봉사의 동반자인 영혼들에 대해서만 사용하느냐? 브라민 영혼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협조의 느낌을 가져라; 그들에게는 권위를 사용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너희의 신체기관과 미묘한 힘들을 다스리는데 너희의 권위를 사용해야 한다. 저 미묘한 힘들에게 예속되어서 너희의 성질이나 산스카라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전능한 권위자가 하는 말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의 권위를 남용하지 말아라.

이 만남의 집회 안에서 밥다다는 세계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의 열의와 열성, 그들의 고귀한 느낌, 그리고 그들의 열망도 보았다. 그와 함께 밥다다는 또한 아버지와 대등해지려는 그들의 고귀한 열망도 보았다. 그러나 밥다다는 오직 생각과 말에 있어서만 이런 것들을 보았다. 바바는, 자아와 남들에게 보여야 할, 끊임없이 ‘목표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지금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은 상승단계에 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생각을 한다. 그러나 생각을 위한 완전한 단계는 결단력 있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너희들은 생각을 하지만 결단력이 필요하다. 너희가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려 그것을 통해 마야에게 영구적으로 작별을 고해왔지만, 또한 동시에 자아를 보는 원반 돌리기(스와다르샨)와 남을 보는 원반 돌리기(파르다르샨)가 있다. 남들을 보는 것은 마야를 부르는 것인 반면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마야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밥다다는 남들을 보는 경이로운 게임의 물결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바바는 또한 무한한 드라마 안에서의 모든 역할에 트리칼다르시가 되려는 목표를 가진 이들 모두가 또한 낭비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무척 많이 트리칼다르시가 됨을 보았다. 너희들은 ‘전에도 같은 식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같고, 앞으로도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트리칼다르시가 된다. 신봉의 길에서 너희들을 본 탄 것인 뭔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가네시와 하누만이 진짜이냐?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무척 재미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 이면의 이유를 바꿔서 자신의 상상으로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들려주는 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한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밥다다는 이 물결도 역시 보았다.

밥다다가 모든 이에게 사랑을 갖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도록 언제나 너희에게 주는 가르침은 ‘자아를 변화시켜라’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는 대신 상황을 바꾸거나 다른 영혼들을 바꿀 생각을 한다. 너희들은 “만일 이 사람이 변하면 나는 팬츠를 것이다” “만일 이 상황이 변하면, 내가 변할 것이다” “만일 내가 이런 시설들을 얻으면 나는 변할 것이다” 또는 “만일 내가 협조와 지원을 받으면 나는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어떤 변화가 지원을 바탕으로 일어날 때는 여러 생에 걸친 보상도 또한 어떤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너희의 소득의 계좌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 그 몫이 나뉜다. 너희들은 너희의 계좌에 아무 것도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축적된 행복과 힘이 박탈된 채로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목표를 가져라. 너희들 스스로가 세계를 위한 지원의 이미지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에게서 받는 지원 외에 다른 모든 일시적인 지원들은 필요할 때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저 소멸되는 지원들은 언제나 너희들에게 뭔가 격동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가 끝나면 다른 하나가 생길 것이고, 이것을 통해 너희의 모든 다른 힘들이 낭비될 것이다. 더 나아가, 움직여 나가는 동안 너희들은 부주의하기 때문에 거듭해서 나약한 말들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거침없이 사용한다. 너희들은 그것을 정직성과 청결함이라 여기면서 그 말을 한다. 너희가 뭐라 말하느냐? “나는 불안정하지만, 반드시 뭔가를 증명하겠다.” 너희들은 무엇을 증명하려느냐? 뭔가 소란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반드시 뭔가가 가치 있는 것이 되겠느냐? 그저 좀 보아라. 그러면 뭔가 역봉사가 있음을 볼 것이다. “나는 나약하고 내 산스카라의 영향을 받는다.” “나는 변할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줘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주 쉽게 이런 종류의 말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거나, 남들을 억압하거나 협박한다. 밥다다는 어떤 영혼들이 이런 생각들을 한 후에 심지어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에 대해 자비심을 갖는다. 이에 누가 손해를 경험하느냐? 그들은 아버지가 손해를 보거나 봉사에 손해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산스카라를 만드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는 도구가 된다. 드라마에 따라서 세계 봉사의 과업은 성공이 보장된다. 아무도 이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밥다다는 너희들에게 하나에 대해 수백만 배의 보답을 주는 도구가 되었다. 그는 자녀들을 봉사의 도구로 만든다. 너희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수백만 배의 보상을 받는다. 자녀들은 자신의 행운을 창조하는 도구가 되었다. 과업은 자기 스스로 요동하는 자들에 의해 흔들릴 수 없다. 사이클마다, 승리의 운명은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나약한 언어를 변화시켜라. 즉, 너희 자신에게 유익을 주어라. 그러므로 세계에 유익을 주는 과업에 강력해지고, 너희의 행운을 창조해라.

아버지는 너희가 많은 노력을 하며, 버림을 행했고, 많은 것을 관용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바바는 그가 사랑하는 이들 안에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는 끊임없이 너희가 고귀해지기를 바라는 좋은 염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는 너희에게 완전해지도록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밥다다는 발걸음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협조하며, 계속해서 끝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아버지는 어느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는 끊임없이, 심지어 그를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조차,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의 협조를 받고 계속 움직여 나가라. 암릿벨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버지에게서 계속 축복을 받아라. 시즌의 끝은 그의 협조가 끝남을 의미하지 않는다. 밥다다의 손과 동반은 모든 형태로, 모든 관계 안에서 각 자녀 하나하나와 함께 있다. 이제 드라마에 따라, 너희들에게 약간 시간이 주어졌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의 행운으로 여기고 시간에서 유익을 취해라. 너희들은 파멸이라는 시계의 바늘이다. 너희가 완전해질 때, 시간이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본래의 자아에 관한 생각을 유지하고,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가 되어라. 앓차.

자신의 미래 행운을 창조하는 도구가 된 영혼들에게, 자아를 통해 미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보답하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와 그룹의 만남:

대 기부자인 자녀들에게서 어떤 징표가 보이겠느냐? 너희들이 대 기부자가 될 때 어떤 유익을 얻느냐? 대 기부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봉사 외에는 아무 것도 너희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없음을 의미하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이 사랑에 잠겨 있음을 뜻한다. 대 기부자는 매 순간 계속 주는 자이다. 어떤 영혼

도 너희에게서 빈 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가 대 기부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축복의 공여자가 되겠느냐? 대 기부자이며 축복의 공여자인 자들은 세계 시혜자들이다. 너희가 받은 것을 끊임 없이 줄 때, 그것은 늘어난다. 너희 대 기부자 자녀들이 뭔가를 기부하지 않는 때나 그런 날은 있을 수가 없다.

대 기부자가 된다는 것은 남들에게 봉사함을 의미한다. 남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너희 자신에게 봉사한다. 대 기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아를 모든 보물들로 가득 채움을 뜻한다. 남들에게 주는 것은 받는 것이다. 너희가 몇 명의 영혼들에게 행복, 평화, 힘, 그리고 지식을 주더라도, 그 영혼들에게서 나오는 성취나 감사의 소리가 너희들에게는 축복의 형태가 된다. 그들의 축복이 계속 너희가 발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은 그 모든 영혼들로부터 축복을 받음으로써 무한한 행복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네 과목 모두에 대 기부자가 되려면 암릿벨라에 너희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너희들은 어떤 과목에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왜 “다른 모든 이에게서 떨어져 나가 한 분과 모든 관계를 맺어라”는 말이 왜 그토록 잘 알려져 있는가? 한 분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가지려면 너희들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서 너희 자신을 떼어내야 한다. 너희가 한 분과 모든 관계를 얻었을 때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너희들에게는 다른 모든 이들과 연결을 끊고 한 분과 너희 자신을 연결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너희가 한 분에게서 모든 것을 얻었을 때는 너희의 지각을 방황하게 만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로 너희들은 사랑을 받고, 그런 다음에는 초연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쉽다. 모든 이에게 초연해지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갖는 것을 연꽃처럼 되는 것이라 한다. 너희가 연꽃 같은가를 체크해 보아라. 너희들에게 진흙탕이 튀지는 않겠지?

가치 있는 선생의 징표는 무엇이나? 가치 있는 선생은 매 순간, 모든 생각으로 봉사하는 자다. 만일 한 순간이나 생각 하나가 낭비되면, 너희들은 선생이라 불릴지 몰라도 가치 있는 선생은 아니다. 가치 있는 선생은 요그육트한 자이며, 따라서 욱티육트하다. 요그육트한 영혼의 생각은 하나하나가 강력하다. 생각이라는 씨앗이 강력할 때는 열매도 또한 강력할 것이다. 도구는 모범인 자이다. 모범에 따라 다른 이들도 같을 것이다.

너희들은 얼마나 많이 듣기를 원하느냐? 이번 시즌에 너희들은 얼마만큼 들었느냐? 이제, 드라마의 운명은 너희에게 소리를 초월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너희들은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몸의 격동도 또한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안에 집어넣도록 말해준다. 즉, 너희들은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모든 것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것의 화신이 될 시즌이다. 지식을 듣는 시즌이 몇 해나 계속되었느냐? 사카르 형태든 복습코스를 통해서든, 지식을 듣는 시즌은 오래 동안 지속되었다. 이제는 너희의 형태를 통해 봉사를 해라. 이것은 계시의 북소리를 울릴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다. 소음은 멈추고 침묵이 있게 될 것이다. 북은 오직 침묵을 통해서만 울릴 것이다. 너희의 입을 통해 북을 치는 한, 계시의 북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계시의 북이 울릴 때는 너희의 입을 통한 북은 조용해졌을 것이다. 말의 승리가 아니라 ‘과학에 대한 침묵의 승리’가 기억되어 왔다. 너희들은 어떤 것을 시간의 종결로서 알아보겠느냐?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소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지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자연스러운 단계일 것이다. 사카르 아버지에게서 너희가 본 완전함의 징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2분이었던 1분이었던, 이 단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소리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올 때 자동적으로 무관심이 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언제라도 원할 때는 소리 안으로 들어오는 습관을 갖고 있듯이, 언제라도 원할 때 소리를 초월하고, 오직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소리 안으로 들어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너희가 이 변화를 볼 때는 승리의 북소리가 곧 들릴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즈음에는 만일 너희가 곳곳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행복보다는 평화를 훨씬 더 많이 원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단 한 순간의 평화의 경험이라도 신을 얻은 것만큼이나 고귀하게 여긴다. 따라서 일초 만에 평화의 경험을 주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평화의 화신이 될 것이다. 언제 파멸이 일어나겠느냐? 누가 그것을 위한 도구가 되겠느냐? 누가 시계 바늘이나? 시계 바늘은 시계가 울리게 만드는 도구들이다. 그러면 누가 파멸의 종이 울리게 만드는 시계 바늘이나? 너희들은 모든 힘의 재고를 비축했느냐? 만일 너희가 아무런 재고도 비축하지 못했으면 여러 생을 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 한 생 동안 너희들은 여러 생을 위해 축적해야 한다. 너희들은 21생 동안 지속될 만큼 충분히 축적했느냐? 너희들은 거지 영혼들에게 대 기부자로서 기부할 만큼 충분히 축적했느냐? 끊임없이 너희의 재고를 체크해라. 너희들은 모든 힘을 비축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용하는 힘은 갖고 있는데 관용하는 힘은 없고,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시험지의 문제는 너희에게 부족한 힘이 무엇이든 그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나는 여섯 개가 없지만 그래도 둘은 갖고 있다.”

“나는 아무런 다르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봉사는 하고 있다.” 또는 “나는 봉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요가는 하고 있다.” 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바바가 지식, 힘, 미덕 등 모든 것을 갖고 있었듯이 모든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따라라.

끊임없이 본래의 자아에 관한 생각을 통해 축적하는데 관여해라. 너희들은 미래에 지금 이 시기에 관해 많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 너희들은 이에 관해 생각하거나 후회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의 본래의 자아에 관해 생각하는데 몰두해라. 너희들은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모든 과목에 발전하게 만드는데 관여하고 있느냐? 모든 미덕의 경험을 늘려라. 이에 더 많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새로움을 경험할 것이다. 어떻게 경험의 화신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연구를 해라. 그러면 너희가 대단한 즐거움을 가질 것이다. 아버지가 대양이듯이, 너희들도 대양 마스터가 되어야 한다. 이제 너희들은 이런 종류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축 복: 격변 속에서 낙심하기보다는 용기를 내고, 큰 마음을 가져라.

어떤 신체적인 병이 있을 때나 마음 속에 어떤 폭풍이 있을 때, 재정, 가족, 또는 봉사에 어떤 격변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그 격변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 카르마의 잔고가 올라왔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그에 관해 너무 많이 생각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을 더 키우지 말고, 용기를 가진 자가 되어라. ‘맙소사!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너희가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슬로건: 모든 이의 약점을 보는 눈을 감고, 너희의 마음이 내향적이 되게 해라.

*** 음 샐티 O M S H A N T I ***